

\* 마을사 \*

## 신달리·新達里

신창면의 한 마을로 고실말과 구평리로 나뉘어 지며, 총 인구수는 493명이고 호구수는 170호에 이르며, 아직도 산재가 남아 있으며, 효부 정문터가 있고, 정자나무거리가 있어 아름다리 나무가 마을에 있어 마을 전경이 아름답고 대부분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원래 신창군 소동면의 지역인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신촌리, 화달리의 일부, 대동면의 구평리 일부와 아산군 삼서면의 수달리 일부를 병합하여 신촌과 화달의 이름을 따서 신달리라 하여 아산군 학성면에 속했다가 1921년 명칭 개정으로 신창면에 편입되었다.

<신달리 위치도>



### ☒ 고실말, 구평리 마을(신달리)

신달 1리는 고실말, 구역말, 수라리 3개의 마을이 있는데 고실말은 구역말 왼쪽에 있는 작은 마을이며, 옛날에 방앗간이 있어 붙여진 이름이며, 구역말은 수라리 서쪽에 있는 마을이며, 구유말이란 뜻인데 규유는 짐승의 밥그릇을 말하며, 그래서 살기 좋은 마을이란 의미로 구역말, 평말, 궁말이라 불리어 왔다. 수라리란 마을의 소라봉 아래에 있는 마을이다.

신달 2리는 구평리와 신촌, 백성말이라는 세 개의 마을이 있다. 구평리는 수라리 동남쪽 들 가운데에 있는 마을로 거북바위가 있고 대동법 실시 이후 무너미에서 물이 넘어 오면서 상습 침수지역이 되었다 한다.

<조사당시 신달리 마을 관련 사진>



### 1) 위치

고실말 마을은 위도 136-48-40, 경도 126-56-40인 마을에 위치해 있다. 온양에서 신창가는 도로변을 따라가다 보면 오목이 나오는데 오목에서 동쪽으로 1km 들어가면 신달리 마을이 나온다. 이 신달리에서 100m 정도 북쪽으로 가면 고실말이 나온다.

구평리 마을은 위도 36-48-10, 경도 126-57-00의 위치에 있다. 온양에서 신창가는 도로변을 따라 가다보면 오목이 나오며, 오목에서 동쪽으로 1km 들어가면 신달리 마을이 나오는데 이 마을에서 동남쪽으로 100m 정도 가면 구평리 마을이 나온다.

### 2) 현황

고실말 마을의 인구수는 남자 76명, 여자 61명으로 총 137명이 살고 있으며, 호구수는 53호에 이르며, 농업 62%에 종사한다.

구평리 마을의 인구수는 남자 172명, 여자 182명으로 총 354명이 살고 있으며, 호구수는 117호에 이른다. 이곳 주민의 84%가 농업에 종사하며, 기타 업종에 16%가 종사하고 있다.

#### - 인구 현황

구 분 마을명	계	남	여
고실말 마을	137명	76명	61명
구평리 마을	354명	172명	182명

#### - 생 업

구 분	계	농 업	상 업	기타 서비스업
-----	---	-----	-----	---------

마을명				
고실말 마을	100%	62%	6%	32%
구평리 마을	100%	84%	-	16%

고실말 마을의 농경지는 논 47ha, 밭 29ha이며, 농기계는 경운기, 이앙기, 양수기 방제기 등 각종 농기계를 소유하고 있으며, 문화시설로는 마을회관 1개소가 있다.

구평리 마을의 농경지는 논 101ha, 밭 35ha로 조사 되었고, 농기계는 경운기, 트랙터, 콤팩트트랙터 등이 있으며, 문화시설로는 마을회관 1개소가 있다.

- 농경지 현황

구분 마을명	계	논	밭
고실말 마을	76ha	47ha	29ha
구평리 마을	136ha	101ha	35ha

- 문화시설

구분 마을명	계	마을회관	기타문화시설
고실말 마을	1개소	1개소	-
구평리 마을	1개소	1개소	-

고실말 마을의 성씨별 현황을 보면 오씨 13%, 이씨 11%, 김씨 9%로 조사 되었고, 마을의 노령화 추세를 느낄 수 있다.

구평리 마을의 성씨별 현황을 보면 김씨 14%, 이씨 12%, 최씨 7%, 기타 67%로 조사 되었다.

-성씨별 분포 현황

구분 마을명	계	김씨	이씨	최씨	오씨	기타성씨
고실말 마을	53호	5호	6호	-	7호	35호
구평리 마을	117호	16호	14호	8호	-	79호

- 최고령자

고실말 마을의 최고령자는 송 서운 99세이며, 구평리 마을의 최고령자는 박태원씨로 80세가 넘으셨다.

3) 자연경관

고실말 마을에 들어서면 커다란 네 그루의 나무가 눈에 띈다. 마을 입구에 정자나무가 있는데 비슷한 시기에 심은 것처럼 크기가 비슷하다. 마을에는 천년이 넘은 느티나무와 500년 이상의 팽나무 느티나무 숲이 있다. 신달리 뒤 북쪽 길가에 있는 뒷피산은 높이가 74m이고 모양이 소라와 같이 꼭대기가 평평하며, 갯가로 절벽이 쳐서 그 경치가 아름답다. 원래는 수라리 뒤쪽에 있는 산이라하여 수라봉이라 하였는데 수라봉이 변하여 소라봉이 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도둑 바위와 적벽 바위라는 것이 있는데 도둑 바위는 수라리 곧말 북쪽 적벽산 입구에 있는데 바위 모양이 도둑하게 솟았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며, 적벽 바위는 적벽산 북쪽 기암 괴석을 일컬어 적벽바위라 했는데 자유당 시절 채석으로 인해 지금은 옛 경치를 찾아 볼수 없다..

구평리 마을은 거북 모양의 바위가 마을에 있어 지어진 명칭으로 거북 바위의 크기는 길이 2m 60cm, 넓이 2m 30cm의 크기로 다리 밑에 있어 그 다리를 거북다리라 불리고, 들판에 있는 마을로 마을 앞에는 곡교천이 흐른다.

#### 4) 마을 변천 과정

신창군 소동면의 지역으로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신촌리, 화달리의 일부를 대동면의 구평리 일부와 아산군 삼서면의 수달리 일부를 병합하여 신촌과 화달의 이름을 따서 신달리라 하여 아산군 학성면에 속해 있다가 1921년 명칭 개정으로 신창면에 편입 되었다.

#### 5) 입 향

고실말 마을에는 강씨와 채씨가 500여년 동안 살아왔고, 병자호란 이후 모씨가 들어와 살았다고 한다. 병자호란은 1636년에 일어났으며, 이것을 볼 때 적어도 마을의 형성년대는 서기 1140년경 약 860년이 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구평리 마을에는 대동법 시행후 수리시설이 되면서 어려운 사람들이 모여 살았다고 하며, 150년전까지 이 마을에는 11가구에 남자 11명, 여자 55명이 살았다고 한다. 지금은 외지로 모두 나가서 마을의 형성년대 및 원거인 조차 알 수가 없었다.

#### 6) 지 명

##### 十 고실말 마을의 지명

- 고실말 (하촌) : 구역말 왼쪽에 있는 작은 마을인데 옛날에 방앗간이 있어 붙여진 이름이다. 매방앗간이 있었다 함.
- 구역말(윗말, 꺾말) : 수라리 서쪽에 있는 마을인데 구유말이란 뜻이다. 짐승의 밥 그릇을 구유라고 하는데 살기좋은 마을을 구역말, 꺾말, 궁말이라 불리어 왔다. 이 마을에 천년이 넘는 느티나무와 5백년 이상의 팽나무 느티나무 숲이 있음.
- 수라리 : 소라봉 아래에 있는 마을. 마을 앞에 큰 들이 있고 물이 풍족하여 곡식이 잘 되고 가을이 되면 벼가 마을 앞까지 팍 차게 되어 살기좋은 곳이라는 뜻이라 한다. 이곳에는 강씨가 500년, 채씨가 500년을 살고 병자호란 이후 모씨가 들어와 살았다고 함.
- 효자 정문터 : 구역말 남쪽 산 기슭에 있는 오 도빈의아내 효부 동래 정씨의 정문. 후손 없이 허물어지고 터만 남아 있음.
- 정자나무 : 구역말 왼쪽에 1,000년이 넘는 늙은 느티나무가 있다. 지금은 수세가 약하나 그 주위에 수령 500년 넘는 팽나무, 느티나무 8주가 서있다. 옛날엔 곡교천이 이곳까지 흘러서 이 나무에 배를 매었다는 전설이 있다. 정월이면 이 나무에 동제를 지냄.
- 정자나뭇거리 : 구역말 왼쪽에 있는 길거리. 늙은 느티나무 아홉주가 서 있음.
- 정문터 : 구역말 앞에 있는 효자 오 명결의 정문 터
- 대동길 : 구역말 정문재에서 능말까지의 길.
- 곤말길 : 대동길 옆 경노당에서 도둑 바위 쪽으로 넘어가는 길.
- 곤말 (고은말, 아랫말) : 고실과 능말 중간에 있는 마을로 고읍다고 붙여진 이 또는 골짜기에 있는 마을이라 하여 곤말이라 함.
- 능말 (너멋마을) : 곤말의 넘엇말이란 뜻임. 곤말 너머에 있는 마을이라 하여 너머 마을이라 했는데 변하여 능말이라 함.
- 뒤틀산 (소라봉, 소적벽, 고산) : 신달리 뒤 북쪽 갯가에 있는 산. 높이 74m. 모양이 소라와 같고, 꼭대기가 평평잡하고 갯가로 절벽이 저서 그 경치가 매우 아름답다. 원래는 수라리 뒤에 있는 산이라 하여 수라봉이라 하였는데 수라봉이 변하여 수라봉이 되었다고도 한다. 일제시에는 경남철도측에서 이곳에 각종 위락 시설을 하고자 했으나 주민들의 반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일화가 있음.
- 적벽강 : 곡교천 적벽산을 돌아가는 부분을 적벽강이라 부른다. 옛 선비들의 선유터임.
- 망터들 : 번개 동쪽에 있는 들
- 번개 (본개) : 구역말 남쪽 산 밑에 있는 들. 전에는 이곳으로 개가 흘렀으며, 상습 수해를 입는 지역임.



- 원장 : 조개논 북쪽 갯가에 있는 들. 언을 막고 들을 만들.
- 도둑바위 : 수라리 곧말 북쪽의 적벽산 입구에 있는데 바위 형상이 도둑하게 솟았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
- 적벽바위 : 적벽산 북쪽 기암리석을 일컬어 적벽바위라 하였는데 자유당 시 절 채석으로 인해 지금은 옛 경치를 볼 수 없음.
- 가운뎃 샘 : 구역말 앞 들 수로 옆에 있는 우물인데 차갑고 물맛이 좋다. 허재 개수하여 간이 상수도 수원으로 이용하고 있음.
- 웃나무 샘(웃샘) : 능말 적벽산 밑에 있는 샘인데 옛부터 웃에 오르거나 땀띠가 나면 여기와서 목욕을 했음.
- 사내기별 샘 (시내기 샘) : 지금은 가덕리 구역이나 옛날에는 이 샘물을 수라리 사람들이 길어다 식수로 사용했음.
- 모단 샘 : 번개 동쪽에 있는 샘인데 아무리 가물어도 마르지 않아 흉년 밥그릇이라고 해서 이곳에 논을 갖기를 원했다. 지금은 오목리 간이 상수도원으로 활용하고 있음.
  - 만석논 : 조개논 남서쪽에 있는 논.
  - 가재논 : 수라리 곧말 앞의 논.
  - 가루적이 논 : 가래논 윗쪽의 논.
  - 불무논 : 수라리 텃논 앞에 있는 논.
- 세귀뱀이 : 불무논 옆에 있는데 세모가 졌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
  - 원논 : 적벽산 밑에 그 이전 모퉁이에 있는 논.
- 텃논 : 늪막 앞에 있는 텃물 받이 논으로 수리 시설이 없어도 동리에서 흘러들어 가는 물을 받아 농사가 잘된다. 이 텃논 가운데 네 마지기 논을 7대가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집이 있다.
  - 조개논 : 망터 동쪽에 있는 논. 조개가 많이 있었음.

十 구평리 마을의 지명

- 구평리 : 수라리 동남쪽 들 가운데에 있는 마을. 거북바위가 있음. 대동법 실시이후 무너미에서 물이 넘어오면서 상습 침수 지역이 되었다고 함.
- 거북바위 : 구평리에 마을의 수호신격으로 위하는 바위인데 그 옆내에다 거북다리를 놓고 동제를 지냈음.
- 백성말 : 신촌의 남서쪽에 있는 마을인데 150년전에까지 11가구에 남자 11명에 여자 55명이 살았다고 함.
  - 거북들(구평리들) : 구평리 주위에 있는 넓은 들전체를 말함.
- 신촌 : 수라리 남쪽에 새로 된 마을인데 대동법 시행후 수리시설이 되면서 어려운 사람들이 모여 살았다고 함.
  - 똥애논 : 곡교천가에 있는 논으로 논두렁이 뚜아리 같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
  - 운천길 : 선장에서 온양으로 가는 옛 행길
- 계전 모퉁이 (그이전 모퉁이) : 사리때에 조수를 타고 배가 들어와서 계를 팔던 곳을 말함.

7) 전 설

十 정자 나뭇거리 (고실말 마을)

신창면 신달리 마을은 인심 좋고 맑은 곳으로 유명하였다. 이곳에 강씨란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홀어머니를 모시고 가난하게 사는 강씨는 비록 글을 읽을 줄 모르지만 효성이 지극하였고 착하기가 이룰데 없었다. 나이는 서른이 넘었지만 아직 결혼을 하지 못하고 어머니를 모시고 밥과 빨래를 하며 집안일을 꾸려 갔다. 어느날 강씨가 나무를 하러 산에 갔다. 반나절이 넘도록 강씨는 배고픈 줄도 모르고 그저 나무하는데만 정신을 쏟고 있었고 어느덧 해가 저물었다. 그런데 어디서 여인네 울음소리가 어렴풋이 들려 왔다. 강씨는

나무 사이를 헤치고 울음소리를 찾아갔다. 하얀 소복을 입은 여인네가 어느 무덤 앞에 다 소꿉이 앉아 울고 있었다. 이유를 묻고자 강씨는 그 여인네 앞으로 다가갔다. " 왜 이리 혼자 울고 계신지요?" 고개를 살며시 든 여인네의 얼굴! 강씨는 순간 가슴이 설레임을 느꼈다. ' 이 여인과 결혼 할 수만 있다면....' " 얼마전 저의 어머님께서 돌아 가셨습니다. 이제는 의지할 곳이 없게 되었습니다. 의지할 사람이라곤 단 한분인 어머니였는데... 흑흑"

강씨는 겉으로는 안됐다는 표정을 지으면서 속으로는 '옳지 잘됐다. 이 여인을 집으로 데려 가야지'라고 생각했다. "저도 홀어머니만 모시고 살기 때문에 의지할 곳이 없는데 저와 함께 가지 않겠습니까?" 라고 간청 했다. 여인은 강씨를 잠시 쳐다보다가 그의 얼굴에서 믿음을 찾았는지 고개를 끄덕거렸다. 이리하여 강씨와 여인은 함께 살게 되었다. 여인은 강씨와 함께 어머니를 정성껏 봉양하고 부지런히 일하여 집안의 형편이 점차 좋아지게 되었고 아들까지 낳았다. 그 후 세월이 흘러 부지런히 일한 그들은 이제는 기와집도 짓고 밭과 논도 가지게 되었다. 그런데 그 해는 어찌된 일인지 비가 오지를 않았다. 아무리 기우제를 지내고 마을 사람들이 빌고 또 빌었지만 비는커녕 햇빛만 점점 짙어 밭의 콩이랑 고추랑 모두 병이 들고 말라 가고 있었으며, 논은 모두 짹짹 갈라지기 시작 하였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는 도리가 없다고 믿고 거의 포기 상태에 이르렀다. 강씨와 여인네의 집 물독에도 역시 물이 말랐다. 그동안 강씨와 여인은 어머니께 물을 드리기 위해 자기들은 물 먹는 것을 억제했다.

여인은 어떻게 하면 물을 얻을 수 있을까하여 아침부터 산속의 조그마한 물줄기라도 찾기 위해 산속을 정신없이 헤맸다. 여인도 물먹는 것을 잊은 지 오래 였다. 이제는 밭을 옮길 힘도 없이 갈증만 더해 갔다. 곧 쓰러질것만 같았다.' 힘을 내야지 내가 여기서 쓰러지면 어머니와 남편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하며 조그마한 물줄기라도 찾기 위해 억지로 밭을 옮기며 점점 깊은 산중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그러다가 여인은 너무 힘들어 마침내 기절을 하게 되었다. 어렴풋이 정신이 들었을 때 그 여인의 옆을 지나가는 노인의 말이 "이 동네 앞에 나무를 심으면 물이 많이 나오련만."하는 것이었다. 그 말에 여인은 정신이 번쩍 들었다. 마침 여인이 쓰러졌던 옆에 아홉 그루의 묘목이 있었다. 여인은 곧장 마을로 내려가 묘목을 심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말라 죽은줄 알았던 나무가 무럭무럭 자랐으며 샘에서 다시 물이 솟기 시작했다. 그후 정자나무 밑에서도 무리 솟아 신달리 마을은 농사를 잘 짓게 되었고 잘 살게 되었다. 그래서 정자나무거리라 부르게 되었고 1년에 한번씩 여인을 추모하는 제사를 지내게 되었다.

#### 十 효부 동래 정씨의 효행에 대한 일화

정씨는 1649년(인조 27)에 출생하시어 어려서부터 유순하고 착하게 자랐으며 부모님에 대한 효성이 극진하여 동네 어른들께서 칭찬이 자자했다. 정씨는 점점 자라 출가할 나이가 차니 이웃 동네인 감나무골 싸리나무골에서까지 소문이 뻗치니 여기저기에서 혼처가 빗발치게 드나드는데 정씨의 괴로움은 날로 더해만 갔다. 어찌 부모님 곁에 떠나 출가할 수 있겠느냐며 극구 반대했으나 날이 갈수록 부모님께서 노심초사하시니 부모님의 걱정을 놓게 하기 위해서 출가한 것이었다. 이리하여 혼처를 정한 덕이 감나무골 오공덕으로 정했다. 남편은 오 도빈의 아버지께서 일찍 세상을 떠나시어 홀어머니 밑에서 애지중지 자란 남편과 시어머니의 행동은 눈에 거슬릴 정도였다. 시댁 식구는 시동생, 고모, 시아주버님 등 합하여 열이 넘었다. 영인은 친정에서 단 세식구만 오붓하게 지내다가 엄청난 시댁으로 들어오니 앞날이 캄캄했다. 남편인 도빈은 첫 날밤에만 보았을 뿐 그 다음 날부터는 거처를 다른 데로 옮겨 갔다. 큰 일을 할 사내 대장부가 어찌 사적인 일에 얽매일 수 있는냐는 시어머니의 방침이었다. 위대한 인물 뒤에는 아녀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몰랐던 시대이니까... 결혼 초부터 남편과 생이별을 하고 싸늘한 주검속에서 독수공방을 지켜야 하니.... 이로부터 정씨의 고된 시집살이는 시작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정씨는 귀머거리 3년, 병어리 3년, 봉사 3년이라는 숙된 말앞에서 고개를 숙여야 하는 것이다. 싸늘한 동짓날에 아침의 정적을 깨는 새벽 닭소리에 언제나 같이 일어나 아침을 지어야 하고 만일 소란을 피워 시댁 식구 중에 깨는 사람이 있으면 물골을 면치 못하는 가련한 신세였다. 엄동설한 추운 겨울 부엌에서 누른 밥과 간장으로 시장기를 때우고 흑시 시댁 식구들이 먹다 남긴 생선 꼬리나 먹어야 하다니.... 그 많은 재산과 쌀들은 언제 먹을려고 광애다 모셔 두는 것인지 정씨는 신세만 한탄하되 시어머니나 시댁 식구를 원망한 적은 없었다.

시댁 식구중에 누구 하나 정씨를 돕는 일이 없어 산더미같이 쌓인 빨래를 시작한다.. 손이

터져서 피가 나고 발은 동상에 걸려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몸이 되었지만, 허리가 끊어져라 빨래를 하고 나면 몸은 가루가 되는 것같은 고통과 아픔을 혼자서 이겨내야 하니 정씨의 몸은 날로 허약해져만 갔다. 그러던 추운 겨울이 어느날 밤에 시어머니께서 혼인 집이라고 한복을 지으라고 하시어 밤잠 한 잠도 못자고 만든 탓으로 좀 늦잠을 자고 일어나 급하게 급하게 아침을 짓느라고 물동이에 물을 가득 담아 머리에 이고 부엌에 이르다가 그만 얼음위에서 발을 헛디디어 넘어지고 말았다. 이 소리에 놀란 시어머니와 시댁 식구들의 눈초리에 정신이 들어 주위를 살피니 시어머니께서 "눈을 어디에다 빼놓고 다닌다더냐? 어디 아녀자의 몸으로 이다지도 방정맞단 말이냐?" 이같이 뇌성벽력이 떨어지셨다. 물동이는 산산조각이 났고 손과 무릎에선 피가 나고 팔뚝을 뺀 것 같은 아픔을 느꼈다. 그러나 아프다는 소리도 못하고 고양이 앞에 쥐처럼 부끄러움과 창피함에 다시 물을 길어다 밥을 짓는데 조리질도 못할 정도로 아팠기 때문에 왼손으로 조리질을 해야만 했다. 성의껏 잘 지어서 진지상을 갖다 바치고 부엌에 있으려니까 이게 웬 청천의 병력이더냐. "네 이년 시에미 밥 먹는 것이 그렇게도 아깝다더냐? 눈이 멀었느냐, 손이 빠졌느냐? 그래 쌀을 손으로 일었느냐, 발로 일었느냐, 시에미 이빨 튼튼하게 탐나드냐? 그리고 장맛이 이게 뭐냐 우리 집 장맛은 동네에서 소문 날 정도로 꿀맛인데 똥맛이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나? 몰래 친정에다 퍼다 주고 바꿔치기 한 것이 아니더냐? 이년! 난 너같은 며느리 둔 적 없다. 내몸 이 집에서 나가라." 정씨는 백번 사죄를 하며 바른 말 한마디 못하고 호랑이 앞에 토끼처럼 손이 발이 되게 빌고 또 빌어서 간신히 용서를 받았다. 이 일이 있은 후에 알게 된 일이지만 정씨의 팔이 빠졌던 것이다. 살이 예이는 듯한 통증을 눈물로 지새웠던 것이다. 달과 해가 바뀌어 어느덧 내일이 친정 아버님 환갑이신데 자식된 도리로 살아 있으면서 가 뵙지 못하는 정씨의 괴로움이야말로 삼척동자도 알 것이다.

이같이 정씨가 독한 시집살이 한다는 소문은 친정 부모님에게까지 알려졌다. 이 소리에 어찌할 수 없는 팔자를 한하시며 불쌍한 딸을 조금이나마 위로하는 뜻에서 알약으로 된 한약을 몰래 전해 주었다. 혹시 약을 다리다가 들킬까봐 알약으로 된 것을 지어다 주신 것이다. 정씨는 "약을 받아 들고가 뵙지도 못한 죄가 사무치는데 어떻게 보답을 할 것인가" 하시며 한탄하였다.

세월이 흘러 남편 도빈과 과거에 급제하고 지위도 높아지는데 몸이 쇠약해져서 그만 자리에 눕게 되었다. 20년간이나 남편의 손목 한번 잡아 본적이 없는 정씨는 남편을 위해 밤낮으로 극진한 간호를 하는데도 남편은 날로 허약해지는 거시다. 시어머니께서는 정씨의 성의가 부족해서 아들이 더 약해졌다면서 살이 예이는 혹한에도 노령 백발의 시어머니의 3년간 병간호에 쇠약해 지셔서 옆친테 겹친 격으로 몸져 눕게 되었다. 남편의 간호와 시어머니의 병간호를 하는 정씨의 고달픔과 고통을 겪는 동안 몸은 날로 허약해졌다. 그러나 허약한 몸으로 미움을 갖다 드리면 시어머니께서는 "안 먹는다. 네가 네년의 속을 모를 줄 알고? 내가 얼른 죽어야 내가 편하지. 그러니 나 이거 안 먹는다." 하시며 거절하시며 툭 채뜨리면 다시 해드려야 하는 고초도 심했다. 그러나 정씨는 시어머니께서 죽는다는 무덤앞에서 몸부림치는 모습이 너무 가련하게 느껴져 더욱더 성의를 다해 정성껏 간호해 드렸다. 마침내 1년간의 투병생활 후 마지막 말씀이었다.

"내가 못된 시에미 밑에서 고된 시집살이 하느라고 너의 물골이 말이 아니구나. 마지막 떠나는 길에 내 아들을 부탁한다." 하시며 열쇠를 건네 주셨다. 그 뒤 3년상을 지냈는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따뜻한 밥과 국물을 손수 갖다 바쳤다. 남편인 도빈은 6년의 길고 쓴 투병생활로 같은 해 세상을 떠나시니 정씨는 이 속된 세상을 떠나시고 속세를 잊겠노라 하시며 순절하고자 하였으나 자손의 만류에 뜻을 이루지 못하자 "나의 하늘이 무너졌으니 어찌 홀로 해와 달을 이루고 살 수 있으리오. 나의 평생의 한을 어느 곳에 하소연할 것인가?"라 탄식하였다.

### 8) 전통놀이 및 대표적 행사

고실말 마을은 정월 초하루부터 보름사이에 호랑이 날을 택일하여 뒷피산에 당집에서 산제를 지내며, 이날은 마을 어른들중에 생기복덕한 사람이 제주를 맡고 제구를 준비하여 당집에 가서 소제를 올리면서 마을의 안녕과 개인의 복을 빈다.

구평리 마을에는 거북 다리가 있는데 충남 서부권인 서산, 당진, 삽교등의 주민들이 거북 다리를 이용하여 음봉을 거쳐 둔포, 평택등 경기 지방의 길목으로 이용했다. 옛날에는 마을 입구까지 조수가 들어 왔어 인근 지방의 상인들이 거북 다리를 이용해 구평리에 많은 왕래를 했다고 한다. 이 길은 그 당시 물물교환의 장소 이기도 했다 하는데 많은 상인과

주민들의 안녕과 그곳을 지나가는 사람들의 안녕과 이 지역의 지대가 낮아서 홍수와 재앙을 막아 달라고 하는데서 노신제를 지내게 되었는데 내의 물줄기를 가로 지르는 위치에 장방형의 거북 모양의 커다란 돌. 길이 2m 60cm, 넓이 2m 30cm의 표면에 나타난 부분이 돌출되어 있어 그 거북 모양의 다리를 밟고 내를 건넜는데 이곳에서 노신제를 지냈다 한다. 약 200년 이상일 것이라는 동네 어른들의 이야기다. 노신제 후 마을 인근에 있는 버드나무 참봉제(도깨비제)를 지냈다고 한다. 버드나무의 수령은 알 수 없으나 수령이 오래된 것으로 옛날에는 버드나무에 도깨비가 살았다고 하는데서 참봉제(도깨비제)를 지내게 되었다고 한다. 현재는 존재하지 않고 있으며, 노신제 (거북제)는 음력 정월 14일 저녁 거북 다리라는 곳에서 노신제(길제)를 지내는데 생기 복덕을 보아서 닿는 사람으로 정하게 되는데 부정에 관여 되어서는 아니되며, 정결해야 하며, 노신제를 지내기 일주일 전부터 거북 다리 양쪽 가장자리에 금줄을 쳐서 왕래를 금했고, 제수로는 삼색과실과 돼지머리를 놓았는데 돼지는 반드시 우리나라의 토종 돼지인 검정돼지를 썼고 참봉제(도깨비제)에서는 제수용품으로 개의 머리를 사용하였다고 하는데 이는 도깨비들이 개의 머리를 좋아해서라고 한다. 먼저 노신제를 지낸후 참봉제를 지내게 되는데 그것의 고유문에는 오방대장에게 안위를 축원하는 제사와 이 지역이 지대가 낮아서 홍수와 재앙을 막고 행인들의 안녕을 위하여 빌었는데 여기에서 오방 대장이란 동·서·남·북·중앙등 방향을 말하는 것으로 각 방향의 장군을 색으로 표현하였었다. 동쪽은 청제장군, 서쪽은 백제장군, 남쪽은 적제장군, 북쪽은 흑제장군, 중앙은 황제장군을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지역이란 거북 다리 선장, 합덕 지역을 말한다고 한다. 1차 노신제가 저녁 11시쯤 끝나면 2차로 참봉제를 제물을 짓고 제상을 차려 제사를 지내게 되는데 유사(제주)는 흰옷과 흰 고무신을 신었다고 한다. 지금은 경지 정리로 인해 다리도 없어지고 거북 바위 또한 어디로 없어졌는지 알 수 없다. 마을에 음력 칠월칠석으로 마을 어른들을 모시고 음식을 나누어 먹고 효도 관광을 봄·가을에 보내 드리고 있다.

### 9) 특별하게 소개할 만한 인물

十 열녀 정씨 부인

이 열녀 정문은 아산군 신창면 신달리 1구에 자리잡고 있다.

여조씨의 선략 장군이요, 선전관을 지낸 해주오공 도빈의 부인 정 영인 여사의 덕행을 기린 정문이다. 정씨는 1649년(인조 27)에 출생하시어 해주 오공 도빈의 처가 되었고 고된 시집살이를 하면서 시어머니에게 효행을 다하고 남편을 지성으로 섬겼다. 공의 사후에도 생사와 다름없이 봉선지절의 예를 다 하시고 1728(영조 4년) 11월 19일 79세의 일기로 별세 하였다. 이와 같이 영인 여사의 뛰어난 정절에 크게 감동한 도내 열 읍 선비들이 뜻을 같이 하여 이 열녀문을 세우도록 조정에 상소하여 1763년 (영조 12년)에 특별이 내리어 이 정문을 세웠다 한다.

十 진수린(陳壽麟: 고종 35년 (1898)~(1930)

독립운동가, 아산군 신창면 신달리 181번지에서 출생한 그는 항일독립운동가(抗日獨立運動家)인 최익수와 사촌 남매간(男妹間)으로 두 사람은 평소 매우 친밀(親密)한 사이로 지냈었다. 그는 최익수의 항일독립사상(抗日獨立思想)에 감화(感化)되어 가던 중 3·1 독립만세사건(獨立萬歲事件)이 일어나자 일제(日帝)에 대한 우리 민족(民族)에 대한 학살(虐殺), 고문(拷問)등 세계(世界)에서 찾아보기 힘든 천인공로(天人共怒)할 야만적(野蠻的)인 행동(行動)에 격분(激忿), 일제에 대한 적개심을 갖게 되어 항일독립운동을 하기에 이르렀다. 군자금모금(軍資金募金)을 위해 상해임시정부(上海臨時政府)로부터 본국에 돌아온 최익수의 뜻을 도와 그가 근무(勤務)하던 아산금융조합(牙山金融組合) 공금(公金)을 독립운동자금으로 빼내기로 한 후 온갖 어려움을 무릅쓰고 공금을 빼내는데 성공했다. 이렇게 해서 는 최익수, 이종락과 함께 그 공금을 가지고 상해로 갔다. 이 세사람의 독립투사중(獨立鬪士中) 이종락(李鍾洛)은 그 곳에서 독립운동(獨立運動)을 하던중 이질병(痢疾病)을 얻어 세상을 떠났고 최익수는 재차 군자금모금(軍資金募金)을 위해 본국(本國)에 돌아왔고 그는 상해에 머물러 있으면서 독립운동(獨立運動)을 계속(繼續)했다. 그가 상해(上海)에서 활동(活動)한 사항(事項)에 고나해서는 그 자료(資料)의 소실(消失)로 알 바가 없다. 다만 그 당시(當時)의 상황(狀況)을 증언(證言)을 통해서 알 수 있을 정도이다. 증언(證言)에 의하면 독립운동(獨立運動)을 하기 위해 가정(家庭)도 직장(職場)도 젊음도 버리고 생명을 걸고 왜적(倭賊)과 싸워서 조국광복(祖國光復)의 그 날을 위해 온갖 정열(情熱)을 바쳤다고 한다. 그는 1929년경(頃) 상해에서 체포(逮捕)되어 공주지방검찰청(公州地方檢察廳)에 이



송(移送)되어 취조(取調)를 받았으며 공주지방법원(公州地方法院)에서 징역(懲役) 2년형을 언도(言渡)받고 공주형무소(公州刑務所)에서 복역(服役)하던중 불과 몇 달은 앞두고 어느 날 죽음 직전(直前)에 병보석(病保釋)으로 풀려나 집에서 치료(治療)를 하였으나 모진 고문(拷問)으로 시달린 그는 33세의 젊은 나이로 끝내 세상을 뜨고 말았다. 묘소는 아산군 신창면 읍내리 마을 산에 있는데

후손이 없어 조카들이 성묘(省墓)를 하고 있다. <한국독립운동사(韓國獨立運動史)...등>

#### 10) 종교현황

기독교로서 예수재림교회로 신도수는 71명이며, 신창성결교회로 신도수는 32명이다.

#### 11) 공장현황

고실말 마을은 공장이 없으며, 구평리는 세라믹 절연체를 만드는 공장과 아튼건업으로 포장용 판지를 만드는 공장이 있다.

力 아튼건업(주) : 신달 286-14. 포장용판지. 92. 4. 18. 면적 2,995㎡ 종업원수 14명  
力 (주)우진 전자세라믹 : 신달 295-15 세라믹 절연체 92. 7. 28. 면적 1,505㎡ 종업원수 33명

#### 12) 마을의 특성

고실말 마을은 아직도 당제를 지내고 있으며, 효부정문터가 있고 정자 나뭇거리가 있으며, 주로 벼 농사를 많이 짓고 있으며, 이것이 주소득원이 되고, 서로 도와주고 믿는 시골 마을의 정경을 그대로 지니고 있다.

구평리 마을은 예전에는 거북다리제를 지냈으나 지금은 거의 외지로 나가고 몇 가구만이 있어서 거북다리제를 지내지 않고 있으며, 옛날에는 다제비라 하여 단합이 잘 되는 마을이라 불리웠고, 이곳 역시 고실말 마을과 마찬가지로 벼농사를 주소득원으로 하고 있다.